

### 대기업 계열 렌터카 총량제 반발해 소송 운행제한 취소 요구

대기업 계열 렌터카 5개 업체가 제주도가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한진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회사는 제주도가 렌터카 운영을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렌터카는 총 6085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또 28일부터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1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 올해 내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6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 '냉랭'

### 제주 올 4월 심리지수 64.2... 전국 87.7 주택시장 63.5·토지시장도 70.6 '최하위'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한파'가 불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87.7로 3월보다 3.2%p 떨어지면서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는 >95 미만을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을 보합 국면 >115 이상을 상승 국면 등 각각 구분된다.

수도권 심리지수는 90.6으로 이전 달과 비교해 1.4%p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84.9로 이전달과 비교해 4.9%p 하락하며 하강 국면을 이어갔다.

대전(2.9%p)과 충남(0.2%p)이 오른 반면 제주는 64.2로 가장 낮은 상태이며 3월 74.9에 비해서도 10.7%p 떨어져 최고 높은 하락률을 나타

냈다. 제주지역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 처음 포함된 지난해 12월 84.7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86.8)도 3월에 비해 3.9%p 하락하면서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수도권(89.6)은 2.2%p, 비수도권(84.0)은 5.7%p 하락했다.

제주지역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63.5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11.2%p 하락했다.

4월 제주지역 주택거래량은 646호로 3월 576호에 비해 12.2%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기간(836호)에 비하면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대 나이트게일 선사식 제주대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72명이 16일 공과대학 강당에서 임상실습에 앞서 가진 '제20회 나이트게일 선사식'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촛불 의식을 하고 있다.

### "제주제2공항 발목잡는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성산을 추진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발목잡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백년대계와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의 활로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주 관광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보전관리지역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 "해군 장성 안다"... 사기행각 40대 구속 식자재 2억 납품 사기... 4억대 공사비 '꿀꺽'

존재하지 않는 해군 장성을 언급해 식자재 납품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타운하우스 개발을 미끼로 수익원의 공사비를 가로챈 4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흥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흥모(72)씨 등 3명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5년 7월 김모(55)씨에게 접근해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익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존재하지 않는 해군 고위 장성의 이름을 언급해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준광역클럽하우스 공사 진행을 완료해 66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회사가 가압류 상태에 빠지자 가짜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독자제보 750-2225

###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7일 금요일 음 4월 13일 (5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60%
20%	성산	60%
20%	고산	60%
20%	서귀포	60%

#### 주간예보

내일	☁️	흐리고 비	18/23°C
모레	☁️	흐리고 비	18/24°C

#### 흐리고 비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19°C. 낮 최고기온은 22-25°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해돋이 05:33	달뜨기 17:44
해질미 19:28	달지기 04:34
물때	간조 03:45
	22:09
	16:00

####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관심		높음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주말 강풍 동반 많은비 내린다

#### 내일 시간당 20mm 강한비... 무더위도 주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다"며 "특히 18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7일 낮부터 18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mm이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산지는

200mm 이상, 남부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운 날씨는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4시 기준 제주가 28.3°C, 고산 26.2°C, 성산 25.2°C로 올 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지만, 비가 오는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2~25°C로 내려갈 것으로 때문이다.

17일 낮부터 바람도 차차 강해져 18일에는 10~14%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송은범기자

### 고교생 22명 日대학 방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대학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대학을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본 대학 방문은 도교육청의 '인 더 월드(In the world)' 대학진학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도내 고등학생 중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축구도시 '서귀포시'

# 2019 NATIONAL 축구선수권대회

기간 : 2019년 5월 19일 - 6월 2일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  
 주최 : 대한축구협회 주관 : 한국실업축구연맹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NATIONAL LEAGUE

KOREA NATIONAL LEAGUE